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사무엘 예언자 / 8월 20일

마태오 제11주일

사무엘 예언자

제2조 /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2응송 / 44, A 34

· 제2조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 181, B 188

· 성당 찬양송

· 성모 안식 축일 시기송 / 181, B 191

· 사도경 : 고린토 전 9, 2-12 / 봉독서 211

· 복음경 : 마태오 18, 23-35 / 115, B 4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성인들의 힘은 매우 큼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지역의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살고 있는데 그가 손을 들고 하느님께 그 수많은 죄인들을 벌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장담하건데 그의 간청으로 하느님께서 그 50만

명의 죄인들을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인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거룩한 성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간청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성인들의 힘은 매우 큼니다.”

부활의 신비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주셨다.”(요한 3,16)

또한 “그분을 믿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요한 1,12)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하느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부활의 신비이다. 구원의 희망 없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던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령이 오시고 언젠가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지어 죽음을 가져 와서 예수님께서도 마치 사람처럼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셨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능하신 신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죽지 않고 또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믿

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예수님 양옆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였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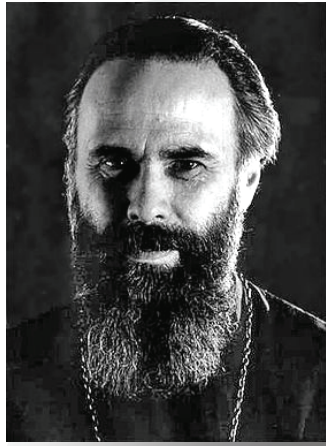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생명으로 가는 자들과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다. 생명으로 가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과 감사함과 평화가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난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며 바른 삶에 대한 소망이 넘쳐난다.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참된 삶의 이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반면에 죽음으로 가는 자들은 알게 모르게 죄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로 크고 작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결국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마음으로 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며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영적 아버지의 역할1



안토니 블룸 대주교

영국 수로즈의 안토니 (블룸) 대주교(1914-2003)가 행한 강연 내용으로서 사목활동의 본질과 힘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준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신는다.

불타는 덩불

영적 자녀가 겸손한 것은 쉬운 일이며 또한 그러리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제나 영적 아버지가 성스러운 영역(곧, 누군가의 영혼)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불이 붙은 덩불 둘레의 땅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도록 모세에게 명하신 방식으로 한 인간의 영혼을 다루기 위해 가져야만 할 겸손은 어떤 것인가?(출애굽기 3장 참조)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든 또는 실제적으로든 바로 그 (불이 붙은) 덩불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성스러운 토대이며, 영적인 아버지는 자기의 신발을 벗은 뒤에만 그 위로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전의 뒤쪽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던 세리처럼, 그곳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장소이므로 하느님 자신이 자기에게 명하시지 않거나 또는 앞으로 나아가 전해야 할 말씀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자신은 그 안으로 들어갈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위해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데 있다. 자기의 영적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자는 옛날 말 그대로 (영적 아버지의) 눈에서 빛나는 영원한 생명의 광선을 바라보았으며, 이윽고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지도자요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청할 수 있었다.

☞ 다음 주 주보에 계속됩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7월 30일(일)에 Lelikov Danil, 니카 뚜파이 두 명의 유아들에게 로마 사제의 집전으로 세례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 성모 안식 성당 축일

정교회 성모 안식 축일을 맞아 서울에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로만 카프착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 그리고 아타나시아 봉사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성모 안식 성당에 방문하여 함께 축일을 축하하며 보냈습니다.

14일 저녁에는 축일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을 거행한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였습니다.

15일 오전에는 축일 조과와 성찬예배 그리고 광복절 대영광식을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와 축일 축하 공연 그리고 대주교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 성모님의 축일을 기쁨 가운데 축하하며 보냈습니다.

축일을 뜻깊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성모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오셔서 축일을 빛내 주신 모든 분들과 축일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성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